



'86~'87 본교생 성적분포 조사

문 덕 진 / 교감

“誠勤”의 건학정신을 본받아 “전통을 창조하는 문일”을 학교상으로 하고 “실력있는 학생”과 “발전하는 학교”를 근간으로 하며 학력관리의 충실, 진로지도의 과학화, 건전한 학생상 정립 및 교육환경의 조성을 노력 중점으로 삼아 2 년간 교육해온 본교의 각종 성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년도별 본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포, 지능 분포 및 입학성적 분포는 표 1, 2, 3과 같고 입학성적 우수자 명단 및 그들의 점수는 표 4와 같다.

[표 1] 중학교별 입학현황

학교 학년도	가 좌	간 석	남 인 천	도 화	동 인 천	박 문	상 인 천	선 화	송 덕	신 홍	영 화	인 성	인 천	인 화	중 앙	제 물 포	기 타	계
1986	33		25		29	22	36	48	33	28	16	15	18	43	12	40	7	405
1987	24	26	39	29	51	29	46	62	43	38	17	16	35	32	19	54	4	585

[표 2] 신입생 지능분포

학년도	급간	151~155	126~150	113~125	87~112	86이하	평균	계
1986		2	61	126	192	23	110	404
1987			122	219	223	9	114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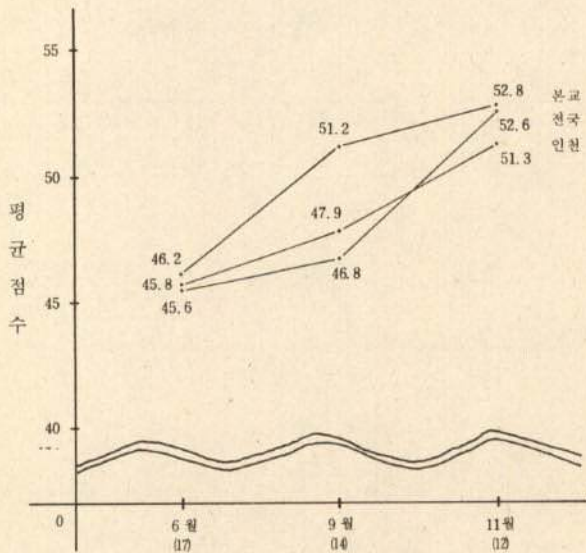
[표 3] 신입생 성적분포

급간 학년도	190 }	180 }	170 }	160 }	150 }	140 }	130 }	120 }	110 }	100 }	99 이 하	계
	200	189	179	169	159	149	139	129	119	109		
1986	6	35	79	88	83	53	17	8	5	8	23	405
1987	11	52	97	121	107	78	46	28	16	28	1	585

[표 4] 신입생 성적우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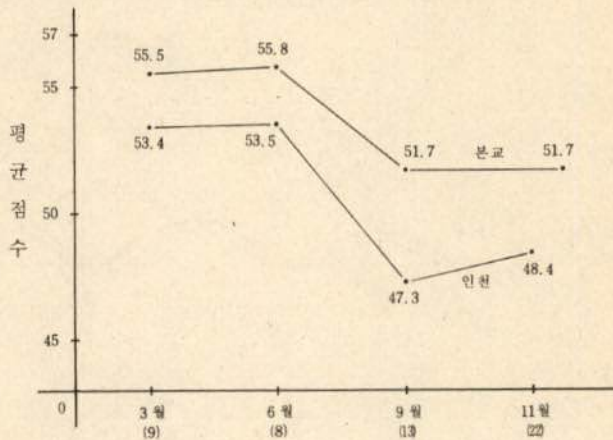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986	김남희	이정례	고현정	한정은	조은아	정민경	배진희	김윤정	조승희	김유란
	198	193	192	191	190	190	189	189	188	188
1987	전은정	김성희	정수진	한희경	정은숙	박현주	김윤희	강진아	박선영	정혜옥 김미경
	196	193	193	192	192	192	191	190	190	190
기타	학대원(방인) 장학금	학교장 장학금	서원 장학금							

위와 같은 학생들을 배정받아 교육한 결과 개교 첫 해의 학력상황은 그림1에 나타나 있듯이 인천과 전국의 평균을 앞지르고 있으며 '86년 7월 15일에 실시한 중앙교육평가원 주관 전국 학력평가 표집고사(국어·영어·수학·국사·화학 5 과목 200 점 만점) 전국1위(고현정 183점)와 4 위(이정례, 173점)를 하는 등 100위 이내에 13명의 학생이 기록되어 신설학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첫 출발이 매우 순조로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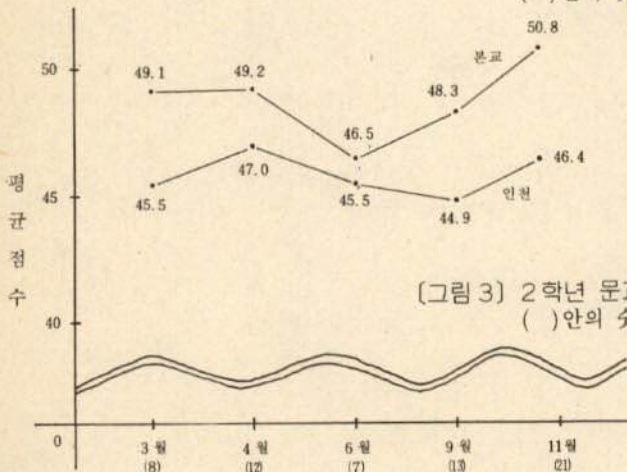


[그림 1] 1986학년도 성적상황
()안의 숫자는 인천시내 용시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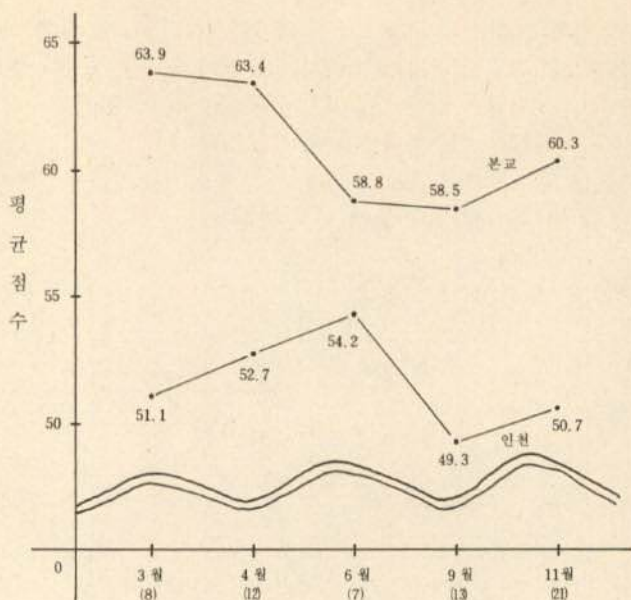
한편 그간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지도한 결과 개교 둘째해인 금년의 성적현황은 그림 2, 3, 4에 나타나 있듯이 1학년의 경우엔 2점내지 3점의 차를 보이면서 인천평균을 앞지르고 있고 2학년의 인문계열은 6월에 약간의 굴곡을 보이긴 했으나 9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며 향상이 눈에 띄고 자연계열은 인천평균과는 10점을 넘는 현저한 차이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학기말엔 약간의 저조한 면을 보였으나 2학기에 들어 다시 향상이 돋보인다.



[그림 2] 1987학년도 1학년 성적 상황
()안의 숫자는 인천시내 용시교임



[그림 3] 2학년 문과 성적 상황 (1987)
()안의 숫자는 인천시내 용시교임



[그림 4] 2학년 이과성적 상황
() 안의 숫자는 인천시내 용서교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내 타교와 거의 같은 수준의 학생을 배정받아 1년간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한 결과 2학년에 와서는 타교와는 현저한 차를 보이면서 실력이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제는 교사와 학생들도 자신감을 얻어 기존의 학교와 경쟁을 하면서 빛나는 학교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88학년도에 본교의 첫 졸업생이 될 현재 2학년 학생들 모두가 신학년도에 더욱더 분발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서 본인들로서는 합격의 영예를 안고 후배들에게는 실력있고 존경받는 선배들로서 그리고 모교에는 기념비적인 금자탑을 세우고 사랑하는 후배들과 존경하는 스승님들의 축복 속에 이 학원을 졸업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맺는다.